

##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세관 업무 체험’ “X-RAY로 밀수품을 찾아라”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관복을 입고 여행자 통관 절차 중 하나인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제공

해외로 물건을 가져 나가거나 반대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 모두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여오거나 내보낸 물품은 ‘불법 밀수품’이다.

세관 공무원이 돼 이러한 통관절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진로체험이 있다. 충남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청과 소속 기관 공무원 및 민간인, 외국세관 직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세청 산하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세관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임교수들이 재직하고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행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진로체험은 크게 강의와 체험으로 나뉜다. 학생들은 교육용 관복을 착용한 채로 영상자료를 보고, 강의를 들으며 세관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영상자료는 웹툰 형태로 흥미롭게 제작된 것이 특징. 강의 또한 중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생활 속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체험장으로 이동한다. 체험장은 '수입 통관 체험장'과 '여행자 통관 체험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곳에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을 검사하고 관세를 징수하며 밀수품을 차단하는 실제 세관 공무원의 업무를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다. X-RAY를 통해 밀수품을 찾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고,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여행자의 신변 검색도 해 볼 수 있다.

체험을 마친 후에는 관세행정에 대한 'OX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통해 하루 동안 경험하고 배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프로그램은 한꺼번에 20~3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전액 무료다. 문의 041-410-8544

#### **체험활동 연관 직업**

관세사: 관세사는 물건의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 업무 대행을 맡아 한다. 주로 수출입 물품을 물품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과세과격을 확인해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는 일을 한다. 통관 절차 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를 대리해 해결하며 관세법 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관 직업체험교실’

##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아라”



생물테러가 발생할 때 검역관들이 입는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 본 학생들의 모습.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제공

세계화의 영향으로 해외를 오가는 사람들이 늘고 국가 간 교역량도 크게 확대됐다. 문제는 국제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에서 유행하는 메르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 이러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검역관’이다. 검역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국립검역소다. 국립검역소는 주로 공항, 항만 등이 있는 출입국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13곳이 있다. 그 중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국내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검역을 담당하는 곳.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2012년부터 청소년 대상으로 검역관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한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검역관 직업체험교실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지는 검역 과정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다. 검역의 기초 단계인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보는 한편 학생들이 스스로 검역관이 돼 모의 검역대에서 검역 과정을 체험해 보는 것. 공항 검역에 사용되는 열 감지 카메라 사용법을 배워 직접 사람들의 발열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또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체 채취’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검역관은 감염병 예방 업무 외에 공항 등에서 생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업무도 함께 맡는다. 학생들은 생물 테러 발생 시 검역관의 현장출동 복장인 개인 보호 장비를 직접 착용해보고 생물테러 진단키트 사용법도 배워볼 수 있다.

이후 프로그램은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청사로 이동해서 이어진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위치한 예방접종실을 둘러보며 황열, 콜레라 등 국제공인 예방접종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그 외에 검사실 등 시설을 견학할 수 있다. 이처럼 검역소가 어떤 곳인지를 배우고, 검역 업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체험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직업체험교실은 6월과 11월에 운영된다. 한 회에 2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032-740-2753

**체험활동 연관 직업**

검역관: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항공기 등을 검역하는 일을 한다. 공항, 항만 등에서 근무하며,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 등을 통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외전파를 막는다.